

총선 D-19

현역의원·386 손뚫던 민주 공천

유망 신인 탈락... 전문가 영입도 실패

현역 141명중 교체율 22% 불과 물갈이 무색

중앙무대 검증된 신인들 규정 틀 갱혀 고배

통합민주당은 20일까지 전국 153곳 공천자를 확정했다. 애초 비리 전력자 공천 심사 배제를 내세우며 요란하게 출발한 공천심사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개혁 공천을 외쳤지만 그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절반 가량의 현역의원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예까지 나왔지만 막상 공천 뚜껑을 열어보니 개혁공천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특히 참신한 인물로 분류된 후보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전문가 그룹 영입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김승남·배종호·민형배씨 등 정치 신인들은 숫자와 규정의 틀에 갇힌 공천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당내 세력판도=공천 결과로 보면 당내 세력판도의 변화가 감지된다. 구 민주당 출신과 정동영계가 위축되었지만, 순화규계와 친노그룹이 선전했다. 구 민주당 출신 중 공천 확정자는 김효석·이낙연·최인기 의원과 김영진·추미애·이응삼·심재권·김성순·박주선 전 의원, 성장현 전 서울 용산

구청장 등 10명 남짓한 수준이다. 정동영계도 이용희·양형일·채수찬·이근식·장복심 의원 등과 정기남·김영근·오홍근씨 등 원외 측근들 상당수가 공천 장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순화규 대표계로 분류되는 김부겸·최규성·조정식·정봉주·우상호·신학용·송영길·이기우 의원 등은 무난히 공천을 받았고 이재하·강훈식·김문환씨 등 원외 측근들도 공천을 받았다. 정동영계가 대부분 호남에서 출마, 치열한 경쟁을 뚫지 못한 대신 손 대표계는 대부분 공천 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에서 출마해 공천장을 따냈다.

친노그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이광재·백원우·윤호중·유기홍·김태연 의원과 김만수·전해철씨 등 17명이 공천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례대표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 박재승 위원장이 20일 오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참석차 제주공항에 도착,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19일 남았는데...”

민주, 공천파행으로 후보 확정 지연
공천 후보들 선거운동 차질 불보듯

상적인 상황인 데 내일까지는 공천심사를 마무리해야 정상적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선거홍보물 제작이 발등의 불이다. 20일까지는 부재자 투표용 선거홍보물 제작을 완료해야 하지만 공천작업이 차질피울

늦어지면서 제때 완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선거인명부 작성시한이 20일로 다가온 점도 문제다. 전락공천으로 새로운 지역에 출마할 경우 20일까지는 주소지 이전절차를 마무리해야 출마자 본인이 해당 지역구 투

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전락공천 후보선정 작업이 박상천 대표와 공심위 간의 갈등으로 '나침'이 늦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락공천을 노리고 있는 인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대다수 지역구에서는 중앙당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기본 자금과 지역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공천작업이 지연되면서 선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당초 '개혁공천'의 기치로 출범한 공천작업이 '용두사미 공천', '파행 공천'으로 전락하면서 자칫 당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방 전문가 김동신 예산 전문가 장병완 구제 여론

불합리한 공천과정서 고배
“경륜·인적 네트워크 살려야”

통합민주당의 4·9공천이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중진과 참신한 인재들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이들을 비례대표로 발탁·구제하는 등의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역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를 경선 등 불합리한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보완하고, 고배를 마신 정치신인에게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한 구제 대상으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광주 북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민주당의 삼초초리로 광주 북구갑 위원장직을 맡아 5·31선거

를 압승으로 이끈 인물이다. 하지만, 막상 자신은 이번 4·9총선에서 현역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아깝게 탈락했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냈으며 호남 최초로 육군참모총장을 지내는 등 호남군 인맥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국방전문가로서, 지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같은 호남출신인 '꽃장수'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이후엔 지난 3년간 김 전 장관과 함께 한 지역민들의 동정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장 전 장관 역시 30여년간 중앙정부의 기획·예산분야에서 근무한 예산전문가로서, 중앙에서 쌓은 경력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데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장 전 장관은 특히 기획예산처장관 재임시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각종 현안 사업 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 서갑, 서울, 전남 무안·신안 공천

빠르면 내일 후보자 확정

통합민주당의 국민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발췌된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광주 서구 갑과 광주 서구 을, 전락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무안·신안의 후보자 확정은 이르면 오는 22일께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0일 중단됐던 통합민주당 공천심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심위 파행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21일 오전까지 박재승 위원장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며 물밑으로 박 위원장과 고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보낸다는 것이다.

서갑·서울, 최고위서 의견 수렴

무안·신안, 홍영기·김성철 거론

무안·신안 여론조사 경선에서의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확인이 지연된 광주 서구 갑과 서구 을의 후보자 확정도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복안이다.

공심위가 재가동되거나 임시 공심위가 구성될 경우, 광주 서구 을과 서구 을의 후보자 확정에 대한 최

고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보낸다는 것이다.

무안·신안은 전락공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와 공심위원장의 후보자 확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심위 파행으로 무안·신안 지역도 이르면 오는 22일께나 후보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락공천 후보로는 김성철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주태문 조지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